

01 교회소식

주님께 드리는 연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구성된 뉴시오케스트라 창단 28주년 소식과 권능의 무안단을 20주년 기념행사.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 속한 권능(시 62:11)의 역사는 무한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케 한다.

03 권능의 역사

“무안단물, 신기합니다”

무안단물로, 여러 가지 치유 역사를 경험한 일본 도키구니 미야코 목사와 이들의 두피가 깨끗해졌다라는 김연 집사의 간증.

04 간증

사랑의 증거

8cm의 난소낭종이 사라지고, 허리협착증과 공황장애가 치료되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17호 2020년 3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찬양전문, 뉴시오케스트라 창단 28주년 맞아



지난 3월 1일, 주일 저녁예배 시 창단 28주년을 맞은 찬양 전문 뉴시오케스트라가 특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김한구 장로의 지휘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뤄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연주하자 앙코르 박수가 쏟아져 '구속의 주'로 다시 한번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뉴시오케스트라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

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3~6)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각종 악기를 통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1992년 3월 1일 창단됐다.

이후 1992년 세계성령화대성회,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등 각종 교계연합행사를 비롯해 국가연례조찬기도회, 한-러 친선 음악회, 2002 월드컵 공동유치 한일축구 친선대회 개막연주 등 국가적 차원의 연주, 사회문화단체의 자선음악회, 해피콘서트 등

100여 회가 넘는 연주를 통해 복음 전파와 기독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일본 나고야, 필리핀, 러시아 연합대성회 선교 사역에도 함께했으며, 각종 예배 때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영감어린 연주로 큰 은혜를 더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관앙상블, 바이올린듀오, 미라클주니어 가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권능의 무안단물 2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3월 1일 주일 저녁예배는 권능의 무안단물 2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부 감사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오전 대예배에 이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출 15:22~25)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1998년과 1999년 교회의 세 차례 연단 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바닷가 지하수의 짠물이 단물이 된 역사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했을 때 나타났던 권능의 사례들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부 축하공연에는 GCN방송에서 제작한 무안단물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데오, 예술선교단, 파워워십팀, 크리스탈싱어즈, 빛의소리중창단 등이 찬양과 워십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한편, 무안단물은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역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표적이다(출 15:22~25).

2000년 3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로 무안단민교회 앞 바닷가 지하수의 짠물이 단물로 바뀐 뒤, 현재까지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동식물이 살아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3면 간증 참조).





권능 위에 권능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12)

당회장 이재록 목사

금이 풀무에 단련되어 정금으로 나오듯이 연단을 통해 성결되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 정금같이 나오는 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권능 위에 더 큰 권능들을 더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행 2:22).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표증된 사람들을 세우셔서(행 3:22)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우리도 신속히 권능의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려면

요한일서 3장 21~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지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해 줍니다.

만일 자신의 마음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하라’ 하신 것은 행함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 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히 11:6).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온전한 영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막 9:29). 그러므로 모든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온전한 영의 믿음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권능이란 무엇인가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으로, 여기서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엄위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에 성결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모든 마음의 악과 비진리를 버리고 성결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면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것이기에 표적과 기사,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표적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며, 듣지 못하는 이가 듣는가 하면, 일어나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 걷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며, 굽었던 허리가 평지고, 소아마비, 뇌성마비가 온전케 되는 것 등이지요. 즉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행함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 즉 신유

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불로 아픈 부위나 질병의 균을 태워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런 병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표적에 해당되지는 않지요. 또 신유의 은사는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주어질 수 있지만 권능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참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2)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

성경상의 희한한 능의 예로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일(행 19:11~12)과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행 5:15~16).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열 재앙,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눅 5:17~26)은 기이한 일에 속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고(마 3:9),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겔 37장). 또한 나귀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민 22:28), 까마귀를 통해 먹이기도 하시지요(왕상 17:6).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천사를 보내 구해 주셨고(행 12:7~10),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행 16:26). 성경 외에도 이처럼 희한하고 기이한 일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기사

기사란 천기를 움직이는 일에 속하며 주로 기상현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름을 움직인다든가 비가 오게 한다든가 오던 비를 멎게 하는 일들이지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뢰와 비를 보내 주셨고(삼상 12:18),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려갔습니다(왕하 20:11). 엘리야 선지자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셨다 했지요(약 5:17~18).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홍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조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1, 632, 5618, 5619, 5626, 5630,
•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침례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찬양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면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권능 위에 권능이란 무엇인가

권능 위에 권능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신성 자체를 자녀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믿을 수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사 42:1) 했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10:35)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 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씀하시지요(요 10:36~38).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4. 권능 위에 권능을 받으면

1) 하나님 뜻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더라도 아무나 살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요 5:20~21).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요 11:43~44), 나인 성에서는 이미 죽어 장사를 지내기 위해 관에 실려 나가는 과부의 아들(눅 7:11~15),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요(눅 8:54~55).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향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던 것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 단지 말씀으로 명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왕상 17:21 ; 왕하 4:32~35 ; 행 9:40 ; 행 20:9~12). 또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은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에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기에 당연히 그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을 받으면 말씀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없던 뼈나 신체의 기관이 생겨나거나 짧았던 신체의

부분이 늘어나는 등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경우이지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다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까?”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은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 내신 말씀이 공간을 초월하여 그대로 역사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주라고 말씀하시자(마 17:27) 그대로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 졌고(막 4:39), 한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마 9:6~7).

이처럼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게 역사되는 권능 곧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역사는 무한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죄악이 심히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안단물로 아들의 비듬이 사라지고 두피가 깨끗해졌어요”

김연 집사 | 54세, 3대대 2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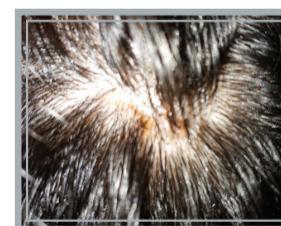
2년 전부터 제 둘째아들(김강토 형제, 15세)은 머리에 비듬이 생기고 상처와 진물이 났습니다. 비듬 전용 샴푸와 치료제를 사용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려워서 긁어대기를 반복하니 고통만 커갔지요.

지난 2월 12일, 무안단물을 아들의 머리에 뿌려주었습니다. 사춘기라 머리나 몸을 만지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머리 뒷부분에 살짝 뿌렸습니다.

3일 후, 아들의 뒷머리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상처 난 곳에 딱지

가 조금 남아 있을 뿐 다른 부분은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지요. 다시 한번 무안단물을 뿌려주고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뒷머리는 완전히 치료돼 비듬이 없는 것은 물론 뾰송뾰송하고 깨끗한 두피가 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 무안단물을 뿌리지 못한 앞머리 쪽은 여전히 비듬이 보였지요. 아들은 무안단물로 뒷머리 비듬이 없어지고 가려움증과 상처가 사라진 것을 체험한 후 이제는 스스로 무안단물을 앞머리에 뿌려 비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상, 다래끼, 무릎 통증 등 무안단물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도키구니 미야코 목사 | 71세, 일본 나고야만민교회

권능의 무안단물이 있어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무안단물은 화상을 입었을 때 정말 효과 만점입니다.

가벼운 화상이라면 한 번 뿌리는 것만으로 열이 내리고 상처 부

위가 금방 낫지요. 이보다 심하면 열이 오를 때마다 뿌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면 이내 기리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할 때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눈다래끼가 자주 나서 불편했는데, 무안단물이 생긴 뒤로는 눈에 무안단물을 넣으면 신속하게 없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뿐 아닙니다. 3년 전, 무릎을 다쳐 걷는 것조차 힘이 들고 무릎을 끓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의 무안단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치료돼 잘 걷고 무릎도 끓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공황장애를 치료받아 마음이 천국입니다!”

염문영 집사 (50세, 3가나안선교회)

2019년 8월, 심장과 위장에 돌 하나가 얹힌 듯 소화가 안 되고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쇠약해졌고, 어느 날에는 호흡이 가쁘고 숨이 안 쉬어져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각종 검사를 했는데 빈혈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의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이렇다면서 정신과로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여러 병원을 뚫고 다녔지만 같은 답뿐이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지고 순간순간 어둠이 엄습해 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두려워 탈 수 없었고, 예배 중에도 숨이 막혀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월 23일 주일에 저는

이수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주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사실이 깨우쳐졌지요.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니 제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임했습니다.

이후 식욕이 당겨 밥을 잘 먹게 되니 기운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맘대로 신앙생활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자 성령의 불이 임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쳤지요.

2월 28일(금) 은사집회 시 기도 받을 때에는 마치 심장에 불이 떨어졌다 할 정도로 뜨겁고 땀이 났습니다. 단에서 간증한 뒤로는 불안감, 압박감이 모두 사라져 지하철을 타고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지요.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8cm의 난소낭종과 빈혈, 어깨 통증까지 사라졌습니다”

차태옥 집사 (51세, 중국 1교구)



2019년 10월, 아랫배 통증과 함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 보니 난소에 8cm 크기의 혹이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혹의 크기가 큰 데다가 자궁 내막증까지 있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해 이복님 원장님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후 몸이 가볍고 통증도 없었지요. 1월 31일 은사집회 때에는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 기도를 해 주실 때 온몸이 뜨겁고 몇 년간 고통 받던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월 17일 병원 검진 결과, 놀랍게도 8cm 크기의 난소낭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뿐 아니라 빈혈 수치가 8.4로 심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13.0으로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여 년 된 허리협착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라타 어거스틴 집사 (56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2000년부터 발병한 허리협착증으로 인해 왼쪽 발의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게 되니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난 2월, 은사집회 때 치료받기 위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끼씩 급식하며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불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성령의 불을 받아 온몸이 뜨거워지곤 했지요.

또한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민기도원 집회도 정성껏 참석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간을 조율해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었지요.

집회 시 이복님 원장님의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마음이 시원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 뒤 슬리퍼를 신으려고 발을 내딛는데 왼쪽 발에 감각이 느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니 제가 균형을 유지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의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파아 4층 ☎010-6218-0703
- 남포향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화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10-545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2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